

성삼 후 21주일 (연중 29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함로렌스 수사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선창: 김니콜라 반주: 정모니카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 산본교회

개회예식

†입당성가 ..... 327장 .....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 6쪽 ..... 집 전 자  
†죄의고백 ..... 6쪽 .....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 집 전 자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 이사 53:4-12 ..... 말 은 이  
성 시 ..... 시편 91편 ..... 다 함 께



- 1 주님을 너의 피난처라 | 하- | 고  
○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 삼았 | 으- | 니.
  - 2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 | 하리 | 라.  
○ 어떤 재앙도 네 집을 가까이 | 못하 | 리- | 라.
  - 3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 명하 | 여  
○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 하셨 | 으- | 니,
  - 4 행여 너 돌 뿌리에 발을 다칠 | 세- | 라  
○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 | 받고 | 가리 | 라.
  - 5 내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 다니 | 며,  
○ 사자새끼와 살모사를 | 짓이 | 기리 | 라.
  - 6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 | 주- | 며  
○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 높여 | 주리 | 라.
- ◎ 영광이 | 성부와 ○ 성자와 | 성령 | 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 아- | 멘

2독서 ..... 히브 5:1-10 ..... 말 은 이  
†복음환호송 ..... 말 은 이  
†복음서 ..... 마르 10:32-45 ..... 말 은 이

설교 ..... 로렌스 수사  
니케아신경 ..... 16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22쪽 ..... 다 함 께  
†봉헌성가 ..... 523장 ..... 다 함 께  
성찬기도 ..... 23쪽 ..... 1 양 식  
거룩하시다 ..... 102쪽(C곡) ..... 다 함 께  
주의기도 ..... 28쪽 ..... 다 함 께  
성체나눔 ..... 29쪽 .....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 다 함 께  
성체성가 ..... 582장 .....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 41쪽 .....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 42쪽 ..... 집 전 자  
†파송성가 ..... 580장 .....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0월 20일)	다음 주일(10월 27일)
1독서	최서은	허훈제
2독서	최자연	조성산
대 도	류한신	김운권
다음주일 전례독서	예레 31:7-9   시편 126 히브 7:23-28   마르 10:46-52	
성 가	457   428   361   492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정국진
다음주간 교회청소	<4조> 유정훈 김승현 이진봉 김영란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10월 20일 성삼 후 21주일 (연중 29주일) · 나해 · 녹색

제28-42호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주님의 종)이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이 훗날 앓게 될 "영광의 자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마시게 될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단 말이나?" 주님은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하느님과 모든 인류를 화해로 이끄시는 위대한 "대 사제"(히브 5:10)이십니다. 사제는 하느님으로부터 회종을 대표하도록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사제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회중을 "동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히브 5:1-2). 사제의 소명과 동정은 위대한 대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고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사제로 부름을 받았으며, 게세마니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인류의 슬픔과 아픔을 향한 완전한 동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

을 바쳐 몸값을 치르시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히브 5:7-10). 주님은 사제이며 동시에 제물로서 하느님께 당신을 완전히 봉헌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이들의 종'이 되시어 모든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강제로 지배"하거나 "권력으로 억압"하여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모든 인류를 "섬기는 사람"이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장나는 듯 보였으나 영광스런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변화된 삶으로 이끄십니다.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이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초대받습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야나)

11월 10일(주일)

모든 교우의 날 · 추수감사주일

\* 모든 교우의 날 (교회축성기념일, 교회설립기념)

1997년 9월 21일, 정기적인 전례가 시작한 날을 산본교회 설립일로 삼아 이제 27주년을 기념합니다. 더불어 2012년 11월 18일은 이곳 성전을 축성한 날로 기억하며 12주년을 기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일'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믿음은 교우들의 마주치는 눈에서 기쁨이 되고, 잇닿은 가슴에서 사랑이 되며, 맞잡은 손에서 친교와 봉사의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지와 벗들 모두를 초대하여, 가족 총동원주일로 기쁘게 모입니다.

\*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루와 한해와 일생의 삶이 모두 "눈물로 씨 뿌리고, 힘써 일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의 과정입니다. 목적을 깨닫고 도전하며, 과정을 성실히 인내하고, 결실을 감사하며 나누는 일이 신앙의 삶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봉헌으로 풍성한 은총을 누립니다.

God bless you · 축복합니다 김세훈 루가 교우(세브란스병원 교수)

요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외국에 있었을 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마다, 주변의 동료들이 짧게 외치는 \*\*\*\*가 bless you 라는 것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혹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God bless you"라고 "하느님"을 덧붙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 갔었을 때는 독일어로 Gesundheit (건강) 혹은 프랑스어 À tes souhaits (너의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관습은 흑사병이 한창이던 시절, 재채기나, 기침이 흑사병의 초기 증상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God bless you라고 하였다는 유래, 혹은 민수기 6장 24절의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라는 구절처럼 고대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입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고대의 생각에 기초한 풍습이라 생각합니다. 바람과 숨을 뜻하는 "Pneuma" 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호흡', '영혼' 그리고 '성령'이라는 의미로 점차 확장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하겠지요.

재채기나 기침에 대해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중에는 바람 같은 성령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서로의 건강과 영혼에 대한 조그마한 축복을 나누어 주면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1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9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전례 곡조

성삼후절기(연중절기) 동안 전례곡조는 C곡입니다.

■ 알림

◆ 모든 교우의 날(축성기념주일) · 추수감사주일

11월 10일(주일) 오전 11시

교회설립 27주년, 교회 축성 12주년을 기념하며 가족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모두 초대해 주세요.

◆ 함로렌스 수사 신부님 초청 설교 말씀

오늘(10월 20일) 11시 성찬례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함로렌스 수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전교우 교육

오늘(10월 20일) 오후 1시에 교육 모임을 가집니다.

◆ 어린이 교회학교

오늘(10월 20일) 11시, 어린이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 수요 성서공부

10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소그룹 모임 / 청년회 · 학생회 모임

10월 27일(주일) 애찬 후 각 모임을 진행합니다.

◆ 산본교회 교회위원회 워크숍

11월 3일(주일) 오후 1시 40분 교회 선교를 위한 워크숍에 모든 교회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위원회 포함)

◆ 안양권역(산본, 안산, 안양) 직분자 세미나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5시 / 안양교회 강사: 이종양 자급사제(도봉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교회위원, 단체장이 대상입니다.

◆ 서울교구 성직자 연례 피정

10월 28일(월)~31일(목) / 성 앵베르 센터(은평구)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병재(22일) 류지민(26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980,000원  
김운권/홍양금 김준우/조장은 백남진/박선희 유근상 이윤식/백옥경

■ 주일헌금 206,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승현 류한신 박선희 박종례 백수빈 백옥경 유근상 유정훈 이윤식 이은경 최순덕 최용욱 황선숙

■ 주일학교 유아윤 유아현 2,000원

■ 감사헌금 650,000원  
김은하 조준행신부(건강) 허예영 조준행신부/이은경(조성산 혼배 감사)

■ 특별헌금 3,030,000원  
유근상, 최미혜(늘푸른) 유근상(나눔의집) 임광호/최숙진(실버가요제, 강촌 피정의집) 임광호/최숙진(남성합창단, 어머니연합성가대)

◆ 주간전례독서 (10월 21일~26일 / 연중 29주간)

	독서	복음
21일(월)	에페 2:1-10	루가 12:13-21
22일(화)	에페 2:12-22	루가 12:35-38
23일(수)	1고린 15:1-11	마태 13:54-58
24일(목)	에페 3:14-21	루가 12:49-53
25일(금)	에페 4:1-6	루가 12:54-59
26일(토)	에페 4:7-16	루가 13:1-9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주일을 잘 지키는 신앙공동체 (예배하는 사람)
-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새교우를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 바라며

◆ 고3 수험생을 위하여 (수능일 11월 14일)

이동우 미카엘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근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 방유미 이은가